

가을 숲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 외교부·산림청, 「Plant Our Planet」 캠페인 연계 공공외교 행사 시행

외교부와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 「Plant Our Planet (POP)」 일환으로 숲 체험 행사를 11월 3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한외교단과 외교부 코리아즈(KOREAZ) 명예기자단, 대한민국 알리미, 주한미국대사관 아카데미(ADHA), 국내 대학생 등 국내외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 「POP」 캠페인 :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나무를 심으면 현실 세계와 연계하여 실제로 나무가 심어지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파. 동 캠페인을 통해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등의 나라에서 약 5천 그루의 나무가 심어짐.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며, 70년전 ‘민등산’ 투성이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전국에 울창한 숲이 가득한, 산림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전세계 2억 명이 참여한 이번 「POP」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한 공공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한편,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산림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참가한 각국 주한 대사와 외교단, 대학생들이 숲 해설, 목공예 등 숲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뽕에란 하자 누리야(Pengiran Hajah Nooriyah) 주한브루나이대사는 참석 외교단을 대표하여 답사에서 외교부가 진행하는 「POP」 캠페인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외교부와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봄에는 지난 4월 파주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을을 맞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나무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숲 가꾸기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 붙임 : 1. 행사 사진
 2. 참고 사진(4월 파주). 끝.

담당 부서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디지털공공외교과	책임자	과 장	류은진 (02-2100-8520)
		담당자	사무관	정동준 (02-2100-8523)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실 해외자원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용권 (042-481-4080)
		담당자	서기관	장민영 (042-481-4236)